

# 東洋의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

## 陰陽五行家

陰陽의 두가지를 포괄하는 보다 근본적인 “것” 또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周易〉도 이미 太極이란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 후 漢代에 쓰여진 〈淮南子〉라는 책에는 보다 분명히 그 先後관계가 밝혀져 있다. 원래 이 우주는 혼돈속에 시작되어 거기서 太極이 생겨나고 太極이 陰陽을 낳았다는 것이다.

얼핏보기에 陰陽은 서로 불평등한 上·下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陽이 위이고 陰이 아래인 것처럼 보이기 쉽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결코 어느쪽이 위여야 한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相補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둘은 언제나 서로속에서 서로를 포함하고 있어서 하나가 극성하면 반드시 거기 포함되어 있던 다른 것이 자라기 시작하여 起伏이 뒤바뀌게 마련이다. 또 陰陽은 꼭 어느 한 쪽이 옳이고 다른 쪽이 틀리라는 도덕적인 구분도 없었다. 中東지방에 성행하던 조로아스터敎도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서로 대립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보고있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陰陽說이었다. 그러나 조로아스터敎의 음양은 陰을 惡으로 보고 陽을 善으로 보아 그것의 투쟁이 이 세상을 만드는 근본적 힘으로 보려했다는 점에서 中國의 그것보다는 훨씬 날카로운 음양설이라 할 수가 있다. 中國의 陰陽은 영원히 반복하는 순환의 원리이며 農耕사회 的 계절의 바뀔과 낮과 밤의 반복이 반영된 소박한 생각의 結晶이었을 것이다.

陰陽說은 항상 뒤에 나온 五行說과 결합되어 이용되었다. 五行이 처음나오는 것은 〈書經〉 洪範편이다. 여기에서는 水·火·木·金·土의 순서로 나오는데 이 순서는 가장 오묘한 것에서 시작하여 제일 평범한 것

으로 내려온 것이다.

물을 가장 오묘한 것으로 본 것은 農耕社會에서 비롯된 사고방식일지로 모른다. 五行이 원래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당시에 알려져있던 다섯 五星에서 비롯했다는 說보다는 古代人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불·나무·쇠·흙등에서 생긴 것이라는 편이 합리적일 것 같다.

처음 독립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五行說은 뒤에 陰陽說과 결합하여 水는 純陰이고 火는 純陽이고 金·木·土는 각각 陰多陽少·陰少陽多·陰陽均이라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음양과 오행은 모두 근본적인 물질요소 氣가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戰國시대에 나온 五行說은 온갖 것들을 모두 설명해주는 원리로 이용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사실은 漢代이후부터나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五行이란 마치 다섯가지 분명히 구별되는 것 들을 일컫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뜻에서는 五行이란 5元素說이라 보이기도하여 마치 그리스이래 西洋이 갖고 있던 火·氣·水·土의 4元素說을 연상케 해 준다.

그러나 西洋의 元素說이 네가지 근본적인 物質을 강조한 것인데 반하여 五行說은 오히려 變化의 과정을 크게 중요시하는 태도였지 物質 그 자체를 나누어 설명하려는데 주목적이 있지는 않았다.

그러기에 五行說은 무엇이 무엇을 낳는다는 相生說과 무엇이 무엇을 이긴다는 相勝說(또는 相克說)을 특징으로 한다.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여기에 뚜렷이 나타난다. 相生說은 순조롭게 바뀌어 가는 변화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이고 이런 설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

- …… 우리는 흔히 現代 發明科學은 17世紀 이후 西洋에서 始作된 것의 延長으로 東洋의……○
- ……發明科學과는 關聯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
- ……이다. 發明科學史는 西洋의 것만이 아니라 東洋의 것도 包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특히 東洋 發明科學史 중에서도 지금 우리의 血管속에 흐르고 있는 韓國 發明……○
- ……科學史의 背景을 이루는 中國의 發明科學的 傳統에 이해가 극히 重要함을 느끼게……○
- ……된다. ……○
- ……이와 함께 佛敎를 통하여 우리의 傳統文化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印度의 自然……○
- ……觀과 우리와 비슷한 傳統에 속하면서도 재빨리 近代 發明科學과 技術의 수용에 成……○
- ……功하여 先進國으로 成長한 日本의 近代 發明科學의 발달상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
- ……이에 本誌는「韓國의 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에 이어「東洋의 發明」의 뿌리를 追……○
- ……跡해 보았다. ……<編輯者註>……○

가고 있는 이름의 돌립글자 고르기에 응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相勝說은 이와는 달리 폭력으로 투쟁에서 이긴다는 뜻을 품고 있다. <呂氏春秋>에는 中國의 건설적인 開國者인 黃帝는 土氣의 힘을 얻어 왕이 되었고 그래서 黃色을 숭상했고, 이어 禹王은 木氣의 힘으로 夏王朝를 세우고 青色을 숭상했고, 湯王은 金氣의 힘으로 商王朝를 세우고 白色을 숭상했으며, 文王은 火氣의 힘으로 周王朝를 세우고 붉은 빛을 숭상했다고 쓰여있다. 이어 이 책은 火를 대신할 것은 水이며 그 다음에는 土로 뺄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五行相勝說을 歷史의 과정에 응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戰國시대 鄒衍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鄒衍의 五德終始說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이 說은 당시에는 아주 깊은 영향을 가진 歷史哲學이었음이 분명하다. 필시 <呂氏春秋>에 나오는 설명은 거짓으로 뒷날 鄒衍등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이겠지만 실제로 그 후 중국을 통일한 秦始皇은 五德終始說을 믿고 그에 따라 秦王朝는 水德에 힘입어 건설된 것으로 굳게 믿었다. 그는 中國의 모든 것발등은 黑色으로 고치고 黃河를 德水라고 고쳐 불렀고 도량형의 개량을 6進法을 기준으로 실시했으며 스스로 6마리가 끄는 마차에 6자 짜리 수레를 탔다고 한다. 이 모두가 五行의 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天文學과 曆學

전국시대 대표적 열강의 하나였던 秦은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다시 한 나라로 통일하게 된다. 통일 후 始皇帝임을 자처한 秦의 王은 즉위 37년만인 210 B. C

에 등방을 시찰하다가 죽고, 통일국가 秦은 몇년 안으로 허망하게 망하고 말았다. 秦始皇의 죽음으로 시작된 혼란속에서 일어난 어느 시골 사람은 드디어 206 B. C.에는 漢나라의 王을 자처하게 되었고 4년뒤에는 귀족출신의 項羽를 물리쳐 통일국가 漢의 황제가 되었다.

그가 바로 漢高祖이며 이름을 劉邦이라 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의 漢(漢)과 楚(楚)이 바로 劉邦과 項羽사이의 대결을 놀이로 옮긴 것이라는 사실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 시절에 대해 익숙해 있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10여년 밖에 지속되지 않은 秦나라와 그에 이어 前漢, 後漢으로 4세기를 계속된 漢나라는 中國에 여러가지로 깊은 영향을 남긴 시대를 대표하고 있다.

우선 秦始皇이 시작하여 漢에 의해 계승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중앙집권적인 專制國家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전국시대까지의 分權의인 封建시대가 끝나고 통일된 큰 나라가 중앙정부의 직접 지배 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동안 中國의 과학기술에도 눈에 필만한 발달이 이루어져 동양과학기술 전통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儒學者 叔孫通의 건의에 따라 엄숙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帝位의 귀함을 알게 되었다고 전해지는 漢高祖는 권력을 잡은 뒤에서야 학문의 중요함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漢代에는 아직 儒學이 그렇게 크게 득세하던 시절도 아니어서 오히려 학문은 여러가지가 자유롭게 추구되고 있었다고 할수가 있었다. <계속>